

초보자도 쉽게...동양화 감상 입문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동양화가 처음인 당신에게

이장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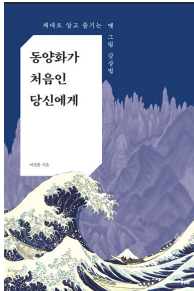
오늘날에는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다채로운 전시가 상시로 열린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기관의 특성을 살린 공간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그만큼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맞물려 문화가 융합되고 시각예술에 대한 애호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외국의 거장한 특별전이나 유명 작가 전시에는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지만 우리 고유의 미술, 동양화를 모티브로 한 전시는 기대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

간혹 박물관에서 제작한 굿즈가 인기를 끌기도 한다. 우리 고유의 것을 토대로 문화상품을 만들어 많은 이들이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것, 특히 동양화를 감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이들은 예상 밖으



로 많지 않다. 작품을 알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작품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는지 심층적인 지식을 전제로 한다.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없듯 작품도 마찬가지다. 그림도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한 이미지로 구현됐는지 파악하면 작품 너머의 새로움이 보인다.

‘동양화가 처음인 당신에게’는 동양화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시대별 대표 작품 등을 소개한 책이다. ‘제대로 알고 즐기는 옛 그림 감상법’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그동안 일반인들과 막연한 거리감

이 있었던 동양화를 주제로 한다. 글을 쓴 이장훈 아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글이나그림 아카데미’라는 콘텐츠 브랜드를 매개로 다양한 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책은 한·중·일 회화의 흐름 등을 토대로 시각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관조, 감상법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시아 화가들은 공통적인 습득의 방법이 있었다. 스승이 그려준 체본을 모사하며 화법을 익혔는데 외양 외에도 섬세한 필치도 그대로 따랐다. 고전을 배운 뒤 개성을 추구해야 좋은 작품 창작이 가능했다. 명가들과 스승의 화법을 배운 뒤



동양화에는 옛 시대의 풍습, 정신 등이 투영돼 있다. 왼쪽부터 신윤복 작 ‘월야밀회’(혜원전신첩), 이정 작 ‘풍죽도’.

조화, 사군자화, 풍속화로 나뉘었다. 위진남북조시대 자연은 선비들을 대변해주는 대상이었다. 산이나 강을 그리는 것은 공자와 맹자가 인품을 흐르는 물에 비유한 이래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인물화는 정신까지 담아내는데 윤두서의 ‘자화상’이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영모화가 감상의 그림으로 창작된 것은 당나라 이후부터다. 본래 ‘깃털 영’자와 ‘털 모’자가 합쳐진 말로 육지 동물은 영모화, 꽃과 새는 화조화로 불렸다. 조선 초기 영모화는 필묵의 유연함과 서정적 분위기가 돋보이는 이암의 ‘모견도’, ‘화조구자도’가 유명하다.

춘추전국시대 네 명의 덕망있는 선비에서 비롯된 사군자는 유교적 군자상을 나타낸다. 조선시대에는 은일의 의미가 투영됐으며, 시와 함께 마음을 담아내기도 했다. 풍속화가 조선 영정조 시기에 유행한 것은 실학의 영향인 시대정신과 무관치 않다. 일본은 에도시대였던 18세기 화려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며 관능적 분위기를 발하는 작품들이 창작됐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동양화의 흐름, 개념 등 기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과 사람에 대한 관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각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감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일 터다.

〈미술문화·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록 땀

김화진 외 지음

시각과 후각, 일상에서 민감하게 수용되는 감각이다. 시각과 후각을 대표하는 대상은 바로 색, 향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다양한 색을 만나고 다양한 냄새를 맡는다. 색과 향은 인지된다고보다 감각적으로 전달된다고 보는 편이 맞다.

소설에도 특유의 색과 향이 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만큼 작가들 나름의 개성과 심미적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애기일 것이다.

작가정신에서 소설향 앤솔러지로 발간된 첫 번째 책 ‘초록 땀’은 색, 향이 내재한 다채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998년 ‘소설의 향기, 소설의 분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작했던 중편소설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이다. 중편소설은 단편의 미학과 장편의 서사가 적절하게 융합된 장르다. 휴가철 차분하게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중편을 읽는 것도 좋다.

이번 작품집에는 김화진 작가(초록 땀)를 비롯해 문진영(나쁜 여행), 이서수(빛과 빗금), 공현진(이사), 김희선(무릎을 찾아서), 김사과 작가(전기도시에서는 홍차향이 난) 등 모두 6명의 소설이 수록됐다.

이들 작품들에서는 색이나 향 등이 하나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날렵하게 세상의 이면과 사람살이의 모습을 포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제작 김화진의 ‘초록 땀’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푸른 색의 땀을 흘리는 보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주어진 삶속으로 발견음을 내딛는다는 내용이다. 이서수 작가의 ‘빛과 빗금’은 색 이전에 빛이 있다는 것을 환기한다.

각각의 작품과 어울려 작가들이 저마다 풀어낸 ‘작가노트’도 읽는 맛을 더한다.

〈작가정신·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눈 맞추는 소설

김금희 외 지음

강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는가. 까만 단추처럼 보이던 눈이 어느 순간 생기를 머금고 당신을 응시할 때, 데구르르 구르는 동공 속에서 말 없는 속삭임이 전해진다. ‘당신에게 마음을 쥐도 괜찮을까요?’

‘눈 맞추는 소설’은 김금희, 장은진, 황정은, 천선란 등 일곱 작가가 동물을 매개로 쓴 단편소설을 모았다. 단순히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이자, 인간과 비인간이 맺는 관계의 윤리적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물이다.

김금희의 ‘당신 개 좀 안아 봐도 될까요’는 반려견을 잃고 슬픔에 잠긴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장은진의 ‘파수꾼’은 건널목을 지키는 노인인 길고양이의 관계를 통해 돌봄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양이는 마지막 순간 노인을 살려내고, 우리는 서로의 파수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서이제의 ‘두개골의 안과 밖’은 조류독감 살처분 현장의 끔찍한 현실을 그린다. 무조건 빠르게 생명을 죽여야만 하는 공장식 시스템 속에서 닭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작업자의 시선은 인간과 동물 모두를 소비하는 자본주의의 폭력을 고발한다. 김중광의 ‘산후조리’에서는 탈장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어미 소와 송아지를 끝까지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 너는 살려고 태어난 것이여”라는 문장은 생명의 존엄을 조용히 일깨운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무시하거나 통제하려 한다. 책의 상상력은 동물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감정에 다가서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 결의 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묻는다. 결국 동물을 이야기하는 일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

〈창비교육·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여성과 전쟁

빅토리아 아멜리아 지음, 이수민 옮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3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는 1만 3500여명으로 추정되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령 지역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던 복싱 유망주 막심 할리니체프, 발레리노 아르템 닷시진, 배우 유리 펠리펜코... 수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참상을 기록하던 한 작가가 있었다.

‘여성과 전쟁’은 2023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서른일곱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아의 유고작이다.

작가이자 시인이자 동화작가였던 그는 전면전이 발발하자 전쟁범죄 조사관이 되기로 결심한다. 민간인 학살과 고문, 아동 납치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록하기 위해 그는 점령지를 오갔다. “피해자와 영웅뿐 아니라 살인자도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책은 단순한 전쟁 보고서도, 르포도 아니다. 그녀가 남긴 전쟁 일기에는 러시아의 폭압에 맞서는 전쟁 속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드론 조종사로 복무하는 전직 인권변호사, 고문을 견디고 다시 복귀한 간호사, 지뢰 제거에 나선 활동가, 밤을 새우는 문학관 사서. 빅토리아는 전선 뒤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을 견디는 삶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작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결국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파초·2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